

# 지방 국립대 위기 공감...소아·산부인과 총원 대책 촉구

## 국감 현장 광주, 전남교육청·전남대·전남대병원

### 광주 고교 시험지 해킹 사건 도마에 도교육청 홍보관 불공정 공모 질타 여야,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쟁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제주지역 국립대 감사에서는 '지방대 위기'에 진단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비판 위주 질의보다는 의원들과 총장들간 지방대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남·제주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과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 전남도교육청=12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시·도교육청 2022 정기국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해킹 사건과 전남도교육청의 설계공모 과정의 불공정성 등이 국감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도중인 민주당 의원은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해킹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학생들이 자동 캡처 프로그램 설치 등 교사들의 정보와 수준을 뛰어넘는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청 대책을 보면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보관 캐비닛 잠금장치 등인데 이게 대책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재발했다"며 교육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매우 미흡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 공모와 홍보담당관 공모 과정의 불공정 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모 학교 심사위원인 이모 교수와 모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학교에서는 각각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허점과 이해충돌 등을 잘 살펴 추진하겠다"며 "홍보관 임명도 관련해서도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관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빚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평가 발언을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로 전수평가로 받아들인다"며 "인사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고 하니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이걸 전수평가로 받아들이나"고 묻고 광주·전남·전북·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서열화 내지 일제고사 전면 실시에 반대한다.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학력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대학교=국감에서 위원들과 대학 총장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태규 감사반장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겸하는 이유가 대학이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며 "신임 교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육부 장관이 청문회 등을 통과하면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상황을 사례로 들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수학 8등급, 지방 국립대 합격'이라는 용어로 각 대학의 정시 총원 등급 하락과 정원 미달 심화를 지적하며, 지역 거점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서울대 대비 규모·교육여건, 1인당 교육비, 전임 교원 확보율 등이 차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에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 총장들

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지역 거점대학 총장들은 이에 대해 "고등 교육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남대병원=전남대를 비롯한 호남권 대학병원들의 필수 의료와 전공의 부족 현상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세 병원의 소아과(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정원이 모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이 두드러졌다. 호남권 대학병원 세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 대비 3분의 1, 산부인과 전공의는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4개 과 전공의 수도 69명으로 정원 대비 77.5%만 채웠다. 제주대병원의 4개 필수 의

료과 전공의 인원은 13명으로 정원 대비 44.8%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이들 4개 과 전공의는 38명으로 총원율이 67.8%에 그쳤다.

권 의원은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1인당 환자 수가 1.3~2.5배 가량 많아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의료수가 제도 개선과 전공의 인력 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필수 의료과에 적절한 의료수가를 반영하고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례법 등 제도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여야 '서해피격' 감사 충돌...“하명감사” vs “내로남불”

### 민주, 유병호·이관섭 문자 공세 국힘, 김정숙 여사 감사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하명 감사'라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감사 당위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을 적극 엄호했다.

감사원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무리한 감사를 일삼아왔다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감사 요구로 맞붙을 놓는

등 여야는 사사건건 맞붙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면서 최재해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고 4시간 이후에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짜고 했다고 의심하는 게 아주 합리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주면 문자로 답하는 그런 기관이나"라고 몰아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유 사무총장을 향해 "이전에 문자가 더 있었는데 삭제하셨다고 하셨다. 어떤 문자가 있었나. 문자는 여러 건이나. 통화는 몇 번 했냐"고 하는 등 '문자 논란'을 캐물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자 논란' 공세에 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사례를 소환하며 총력 방어전을 폈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무려 39건의 직보를 받았다. 이게 진짜 감사원과 한배였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도 "우리 국민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졌는데도 국가가,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못했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는데 문자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개최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

러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맘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